

#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6호 [루계 제2229호]

주제 102

(2013). 6

22

토요일

음력 5. 14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광학측정기재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광학측정기재들의 작용원리와 성능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들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현대적인 광학측정기재의 질을 현저히 개선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립직장의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립직장의 CNC작업장에도 들어서여 설비들의 가동상태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유리제품 및 광학기재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관유리공장의 로동계급들이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질좋고 현대적인 유리제품 및 광학기재를 더 많이 생산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유평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겪워 눈물로 두불을 적시며 인사를 올리는 강사 강혜경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옛 모습 그대로 서있는 사적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며 참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곳 사적지는 어느 단위에서 맡아보는가를 물어주시면서 당시의 환경과 꼭같이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머무르시었던 농민의 집에 들어서시여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책상과 전화기, 밤상 등을 깊은 감회 속에 바라보시였다.

유령지구와 관련한 전설과 지형지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해설을 잘한다고, 중앙의 강사보다 더 잘한다고 치하하시면서 언제부터 혁명사적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주시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유령혁명사적지 종업원들이 산풀이지만 사적지를 깨끗이 관리하고 그를 통한 교양을 잘하고 있다고 다시금 치하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가공 및 조립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하시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된 가공직장에 들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CNC선반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가공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립직장에 들리여 완성된 기계들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을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기계들의 성능도 친히 보고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계들의 성능이 높고 멋쟁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식의 현대적인 기계제품을 제작해내고 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로 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공장유치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의 붓글쓰기도 보아주시였다.

유희실에서 유치원어린이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보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강성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들이 조선로동당에서 맡겨준 현대적인 기계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건설을 2년이 넘도록 끝내지 못한 것을 아시고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는 생산에 앞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첫자리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장 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방침을 사상적

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기계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계획수행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조립장, 가공직장, 시운전장, 주물직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보고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고압풀리에틸렌직장에 새로 건설한 기능성 3겹온실박막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기능성 3겹온실박막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의 로동

계급이 두께가 0.06~0.12mm이고 8~12m 폭을 가진 기능성 3겹온실박막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려놓은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비료출하직장을 돌아보시면서 비료생산정형을 보고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자면 남홍에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료생산량을 늘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알아보시고 결린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축사와 청춘원을 돌아보시면서 후방사업 실태와 로동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후방사업이 안방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의 주인인 로동자들에 대한 옳은 판점을 가지고 후방사업을 짜고들고 있는 기업소당원회 책임임에서 전경선을 높이 치하하시고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홍의 전체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시대의 벅찬 흐름에 발맞추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여러동으로 이루어진 남새온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하여 보고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일념을 가지고 모든 단위들에서 남새온실을 잘 건설하고 관리운영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남새온실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대비를 충분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싸움준비 완성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을 철옹성 같이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리실주동지와 함께 오중흡7련대장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찾으시고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소에 오르시여 비행훈련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들이 리착륙, 공중전투를 비롯한 각종 전투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훈련을 절차별로 잘하고, 당의 의도대로 높은 비행술을 소유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군부대 비행사들은 임의의 시각에 출격할 수 있는 만만의 전투동원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전투직일근무장소와 어버이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비행기호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 비행사들이 전승 60돐경축 열병비행준비도 잘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싸움준비 완성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을 철옹성 같이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통일을 민족 자신의 힘으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하게 견지하신 조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시종일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을 조국통일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삼으셨다.

지난 세기 1970년대 초 북남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측 대표들이 평양에 왔을 때였다.

그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아야 하거나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여 대화를 하며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어려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수령님께서 통일 문제 해결에서 확고히 견지하신 절대 불변의 근본립장이었다.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열렬한 민족애를 지닌 김일성주석의 자주리념은 그이께서 주체 62(1973)년 6월 23일에 발표하신 혁신적 조선민족의 분별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양한 적인 학파와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현방공화국의 단일국회에 의한 남북분단방지의 국회 실시, 단일한 고려현방공화국 국회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방안은 철두철미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앞길을 밝힌 가장 공명 정대한 제안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며 분별의 비운이 절어갈 수록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마음쓰신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이 통일에 국의 길에 나서도록 토고와 심혈을 기울이셨다.

수령님께서는 1978년 11월 어느 날 미국에서 살던 최덕신동포를 만나서 우리 민족의 분별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인지만 조선의 통일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 문제이라고, 우리는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계획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듬해 5월 조국 방문 중인 국제재권도련맹 총재 최홍희 동포를 만나셨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 영구분별의 위험을 막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자면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끼리 조국통일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 백두산에서 쌔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를 통일하지 못했으니 더 못자고 있다, 통일된다면 떠밀었던 잠을 한번 푹 자고 싶다, 우리는 꼭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어느해 어름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수령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민족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여는데 기울이신 그이의 크나큰 협심과 고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1990년 8월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주인이 되어 조국을 통일하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는데 대해 누구도 반대 할 수 없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수령님이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수령님의 멀생의 뜻과 네원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이어졌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힘으로 한 북남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6.15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혁신적인 평양상봉과 6.15 북남 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북남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온 민족은 북남 공동선언을 통일대강으로 높이 들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 끼어 쿠 조국통일의 혁신적 위업을 성취해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 위업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네원을 발들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혁신적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것은 그이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야 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 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듯이 민족운명의 주인이 민족성원들 자신이다. 그런 만큼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그 어떤 의제가 대신하여 해결해줄 수 없다.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스스로 자주적 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는 혁사의 진리이고 민족사의 교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일에 국의 호소, 발걸음마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데 민족자신의 힘으로 삼천리 강勁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 길이 있다.

## …| 선군령도의 길에서 |…

### 과학기술과 전리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 100(2011)년 2월 어느 날 새로 건설된 한 공장을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지식경제시대 첨단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공정의 정보화, 유연화, 다목종화를 실현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주체 99(2010)년 9월 어느 날 장군님께서 자장도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통합조종실에 들리시어 한 과학자를 만나신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오늘 또 여기서 만나게 된다고 무척 반가워하시였다.

순간 그는 장군님께서 이미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을

주체 97(2008)년 1월 어느 날 장군님께서는 제18차 전국프로그램 정기 및 전시회에 출품된 프로그램들을 보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전시품들을 돌아보시면서 프로그램의 성능과 개발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

자들이 나라의 프로그램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롭고 능률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한데 대하여 카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목표로 바쳐온 선군시대의 공

도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진 정치사상 체계를 바로 복수선이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전드리는 그 어떤 외세도 용서치 않는 정의의 종대, 애국의 종대를 높이 드시고 민족자주위업 실현에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자신께서는 인민을 깔보고 우통하는 자들과는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조선민족과 조선의 강도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노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법이 있었다고 하시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지배권을 놓았다.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선민족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본사기자

공화국은 선군으로 존엄높은 나라이다.

선군은 우리 민족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전드리는 그 어떤 외세도 용서치 않는 정의의 종대, 애국의 종대를 높이 드시고 민족자주위업 실현에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자신께서는 인민을 깔보고 우통하는 자들과는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조선민족과 조선의 강도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노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법이 있었다고 하시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지배권을 놓았다.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선민족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본사기자

###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여

드시고 조국수호의 전선길에 나서시였다.

총대가 약하면 조국을 잃게 되고 민족이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면 할 수 없기에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최전방초소들을 찾아 군역 강화의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 길에는 비탈이 심한 경로에서 미끄러지던 야전차를 몸으로 밀고 넘으신 오성산이며 불파 수십 m를 사이에 두고 적아간의 총부리가 마주하고 있는 최전연의 최전방초소인 판문점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폭쇄와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겪고

미국의 한 방송은 『죽어

려고 애국헌신의 날짜 밤을 보내시는 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국력은 곧 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대 위에 민족의 안녕이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첫 자욱이 새겨져 있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그이께서는 판문점과 초도, 풍랑사나운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연,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 등 하늘과 땅, 바다초소 그 어디라 할 것 없이 조국방선에 대한 시찰이

세력의 용납 못할 도발로 이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즉시적인 대응작전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선군령도의 철의 의지와 멀적의 기상을 오성산에서 또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이께서 화살표를 그어주신 작전도마다에 승전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가슴뿌듯이 새기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계시어 오늘도 장군님의 전선시찰은 계속되고 있으며 원수님의 선군장정과 더불어 오성산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군의 산악으로 높이 솟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았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

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천리마를 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강의한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튼튼한 기술 경제적 잠재력을 발동할 때 어떤 어떤 청탁도 능히 침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케 하는 가르침이었다.

그이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에 최신화, 다목종화를 실현한 과학기술을 더함으로써 세계에 놀라우는 기적을 창조

### 현대판 《홍길동》

시금 반색을 하시며 동무는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하시며 호방하게 웃으시였다.

어제는 평양에서, 오늘은 자강땅에서 생산공정에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만나신

그이께서 현지지도의 말에서 만나본 사람들이 많으시면 단 한번 잡간 빈운데 불파한 자기를 잊지 않고 계시었던 것이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로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창조적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조국과 민족의 재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많이 개발한데 대하여 카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목표로 바쳐온 선군시대의 공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

최근에는 최전연에 위치한 오성산을 찾으시고 불파 350m암에 적진이 바라보이는 위험천만한 까칠봉초소에 까지 오르시여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시며 조국수호의 의지를 북돋아 주신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은 펠승의 담력과 배짱,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혁도와 군대와 민족의 하나로 굳게 풍친 혼연일체의 나라이며 당당한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해보유국이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만들 수 있는 무비의 정신력과 강위력한 자립경제체제를 살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첫 자욱이 새겨져 있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그이께서는 판문점과 초도, 풍랑사나운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연,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 등 하늘과 땅, 바다초소 그 어디라 할 것 없이 조국방선에 대한 시찰이

세력의 용납 못할 도발로 이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즉시적인 대응작전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선군령도의 철의 의지와 멀적의 기상을 오성산에서 또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이께서 화살표를 그어주신 작전도마다에 승전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가슴뿌듯이 새기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계시어 오늘도 장군님의 전선시찰은 계속되고 있으며 원수님의 선군장정과 더불어 오성산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군의 산악으로 높이 솟아있을 것이다.

동성희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칼벼랑길

# 통일애국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민족의 분별을 방지하 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40돐이 되어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2(1973)년 6월 23일에 발표하신 이로작은 민족의 영구분별을 추구하는 내외호전 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명시한 불멸의 지침이다.

로작이 발표되던 시기로 말하면 미국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미국은 《너순주의》로써 민족분별을 영구화하려는 내외 반통일세력을 커다란 타격을 받고 겨레는 신심드높이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은 자애로운 태양의 품

## 유인립치되어 남조선에 끌려가다가 공화국으로 돌아온 청소년들과의 좌담회 진행

피뢰페당의 유인립치행위로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과의 좌담회가 20일 고려동포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로정영(14살), 류철룡, 장국화, 리광혁(15살), 정광영(16살), 박광혁(17살), 류광혁(18살), 문철, 백영원(19살)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먼저 피뢰페당의 모략책동에 의해 남조선으로 끌려가던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문철은 장하진이라는 남조선목사님의 집에 모두가 오래동안 갇혀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하였다.

중국 단동에 있는 그 집에서 박광혁은 3년간, 류철룡과 리광혁, 정광영은 거의 2년, 나와 류광혁, 장국화, 로정영은 1년반, 백영원은 다섯달동안 살았다.

우리는 다같이 종교교육을 받으며 살았다.

지난 4월 말경 갑자기 장하진놈이 몹시 불안해하면서 자기 처에게 『이젠 중국에서 더이상 버틸수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고 하는것이었다.

그들은 시장에 나가 가방 9개를 사 가지고 들어와 우리에게 나누어주면서 사품들을 넣으라고 하였다.

11시에 자그마한 짐차 한대가 왔는데 장목사놈은 지금은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움직이면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수 있다, 그러니 3명씩 조용히 차에 오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장하진놈과 차는 그 차에 타지 않고 우리만 떠나보냈다.

우리는 중국사람의 안내를 받으며 차를 타고 30시간정도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후 좀 더 작은 다른 짐차에 옮겨타고 40시간정도 갔다.

우리는 단동에서 떠날 때 장목사놈이 아무것도 물지 말고 그냥 사람들을 따라가지만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는 물랐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 계속 옮겨지면서 옹근 4일동안이나 차를 타고 갔다.

어느 한 곳에서 차가 멈춰섰는데 우리를 안내하던 사람들은 차에서 빨리 내리라고 하였다.

차에서 내린 후 우리는 걸어서 높은 산을 넘게 되었다.

안내하는 두사람의 말을 듣고 서야 중국국경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길이 보이지 않자 안내하던 사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가방안에서 전지를 꺼내 우리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한동안 가다가 갑자기 전지불을 끄라고 해서 모두 깼는데 몇걸음 안되는 앞에서 누군가 전지불을 비치는것이었다.

우리를 인계받기 위해 나온 사람�이였다.

최근 공화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조선당국의 유인립치행위가 또다시 드러나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정보원요원들과 인신매개간군들을 내몰아 북주민들을 남조선에 끌고가기 위해 다른 나라의 비밀거처에 은신시켜놓고있다가 단속통제가 강화되자 그 나라 주재 남조선대사관에 숨겨 빼돌리려고 하였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밑에 김광혁이었다는 것은 문제의 엄중성을 더욱 크게 하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남조선당국자는 지난 시기 저들의 유인립치작전이 실패한데 대해 거듭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이번에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유인립치한 북주민들을 모두 현지에 사관으로 피신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도 안심치 않아 청와대 지하방공호의 『위기판리상황실』에 틀고 앉아 그 정형을 마지막 한명까지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공화국 군대와 인민들이 격분을 금할수 없게 하는 도발행위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보수당이 공무원, 선교사, 기업인의 탈을 쓴 정보원, 통일부소속의 모략가들을 주변 나라들에 내보내며 북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유인, 랍치행위를 벌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얼마전에 드러난 나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유인립치행위도 그 단적인 실례이다.

종교의 탈을 쓴 인신매개간군들은 열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을 유인립치하여 비밀은 신처에 가두어놓고 종교교육과 함께 공화

그 사람의 뒤를 따라 자그마한 마을에 끌려 물만 마시고 또 다른 짐차에 옮겨탔다.

차를 타고 20~30분정도 가다가 멈춰섰는데 거기에는 장목사부부가 나와 있었다.

안내하던 마지막사람이 그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었다.

장목사부부는 그 사람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주었다.

그때에야 우리는 중국국경을 비법적으로 넘어섰다는것을 알았다.

문철은 장하진이라는 남조선목사님의 집에 모두가 오래동안 갇혀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하였다.

그곳에서 하루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뻐스정류소로 나가 뻐스에 올랐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뻐스안에서 서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뻐스는 그냥 서 있었다. 검문단속에 걸렸던 것이다.

리광혁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나라 경찰은 장목사부부에게 어느 나라 아이들인가, 가지고 있는 련권을 보자고 하였다.

그러자 부부는 우리를 남조선에서 중국에 수학 여행을 온 아이들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련권은 련행증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경찰들은 믿을수 없는지 계속 꼬치꼬치 물었다.

장하진놈은 할수 없이 이 애들은 북에서 오는 아이들이고 모두 남조선에 가고싶어 한다, 만약 이들을 조용히 남조선으로 보내주면 후에 9명에 해당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것이었다.

경찰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우리를 뻐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경찰차에 옮겨태우고 어디론가 갔다.

우리는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그 나라의 수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멀리 청동안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때 장목사부부는 이제 경찰들이 한명씩 데려다 물어보겠는데 모두 말이 맞아야 한다, 이제부터 말을 맞추자, 너희들은 모두 북에서 죄를 짓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북에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남조선에 나갈것을 각오한 아이들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북에서 중국 단동의 어느 한 아빠트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놈은 내가 입고있던 수학과 국어공부만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장목사놈은 너희들이 어떻게 죄인처럼 그놈의 집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나같은 아이들이 8명 와 있었다. 여기 있는 동무들이다.

그때 차를 운전하던 놈이 우리를 장백지구에서 랑치하여 은신처에 오랜 기간 가두어놓고 남조선으로 빼돌리려고 했던 장하진 목사님이었다.

문철은 장목사부부가 자녀들에게 같은것으로 입을 끊어막았다.

그들과 싱정이질을 하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하고 머리가 맹해졌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숨이 막혀 죽을것만 같아 몸부림을 쳤다.

그러자 『그걸 벗겨주라.』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숨결이 확 열리였다.

중국 단동의 어느 한 아빠트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놈은 내가 입고있던 솜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게 하더니 아빠트제단으로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죄인처럼 그놈의 집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나같은 아이들이 8명 와 있었다. 여기 있는 동무들이다.

그때 차를 운전하던 놈이 우리를 장백지구에서 랑치하여 은신처에 오랜 기간 가두어놓고 남조선으로 빼돌리려고 했던 장하진 목사님이었다.

문철은 장목사부부가 자녀들에게 같은것으로 입을 끊어막았었다.

그들이 내미는 대화의 순길을 뿐리치고 한쪽으로는 공화국의 주민들을 계속 유인립치해가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는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벌어지고있는 악랄한 동족대결을 그들이 『북인권』이니 뛰어나는것이 얼마나 파격적한 기반이고 진짜 인권유린의 장본인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범죄적인 유인립치행위가 북남관계에 미칠 파국적후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비렬한 『인권』모략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김철호

백영원은 그 집에서 3년이나 지나 12월 어느날 차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승용차가 옆을 지나가며 멈춰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목사부부의 감시와 통제속에서 그들이 시키는대로 해야만 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 잡자기 전까지 계속 성경책의 내용을 외우고 찬송가를 잘 못 외우면 무서운 벌을 주었다.

장목화도 목사부부의 만행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잘 외워하지 못할 때면 머리가 돌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령구리새끼』, 『침승만도 못한 새끼』라고 유클리를 펴보며 가족협의로 사정없이 폐리군하였다.

한번은 남조선에서 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방에 들어가며 웃고 떠든다고 하여 발바닥을 들고 쇠로 된 운동기구로 사정없이 폐리군하였다.

정광영은 그곳은 정말 무서운 감옥이었다고 하면서 매를 맞고 철태를 받으며 살비는 차라리 목사들을 죽여버리고 도망치자고 생각했다, 이것을 눈치챈 놈들은 애단을 치면서 행패질을 하였으며 2층, 3층으로 문을 걸어놓고 일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로정영은 놈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없게 중국TV도 보여주지 않고 남조선에서 가져온 CD만을 보여주면서 우리 같은 아이들이 남조선에 가면 자유세상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잘살게 된다고 유혹하였다.

류광혁은 남조선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올 때면 우리를 좋게 대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속여 넘기군하였다.

박광혁은 장목사에게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그놈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문철은 언젠가 장목사가 만든다, 미싸일을 쏜다 하며 애단을 치고 있는데 이제 너까지 선군을 원하는가?라고 하면서 것은 행패질을 하였다.

그는 류광혁이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맞아 귀가 젖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그는 백영원은 『북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쓴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목사님으로부터 우산대에 얹어

# 새로운 시대어 - 《마식령 속도》

지난 6월 4일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군대와 인민에게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력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시었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부름따라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열의로 춤만이 되어있다.

《마식령 속도》는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대어라고 할 때 생활과 투쟁 속에서 태여나 날리 쓰이며 당시의 시대상과 민심, 경제적변혁 등을 방불하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대어를 가리켜 력사이라고도 하고 한 시대를 들어다보게 하는 창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어들을 낳으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재미있던 남은 빙터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웠고 전선 속의 천리마를 현실에 불러오는 새로운 전성기, 번영기를 펼쳐놓았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강성국가의 력명이 밝아온 나날에도 뜻깊은 시대어들이 많이 태어났다. 선군정치, 혁명적군인정신, 정신, 최첨단돌파전, 대개도의 기적, 변이 나는 해, 강성대국의

불보라, 사회주의 부귀영화, 새로운 평양번영기, '녕변의 비단처녀, 강선의 봉화, 단숨에, 회천속도,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

수많은 시대어들을 탄생시키며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은 자기 땅에 말을 불이이고 불을 세계를 보면 위대한 장군님 따라 질풍처 달려온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비상한 정신력과 원대한 리상, 창조력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또다시 새로운 시대어들을 낳고 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팔을 끌고 어깨를 걸고, 천하제일 강국, 천하무적의 혁강국, 사회주의 문명국, 체육강국, 선군정치, 혁명적군인정신, 정신, 최첨단돌파전, 대개도의 기적, 변이 나는 해, 강성대국의

로운 시대속도,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마식령 속도》, 이는 단 숨에 정신으로 스키장 건설을 하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전진적으로 밀고나가는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속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높이 달고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에 진입한 군인 건설자들은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천연비워들과 협한 산발들을 깎아내고 수십만m<sup>2</sup>의 면적에 총연장길이가 치수에 만m나 되는 스키주로들을 닦아놓았다.

《마식령 속도》는 세기를 주름잡아 인민이 세상만복을 누리는 황황한 레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비상한 공격속도이고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는 천

m

만군민의 일

심단결의 속도이며 필승

의 신념과 러

관으로 불가

능도 가능으

로 전환시키

는 정신력의

강자들의 돌

격속도이다.

인민 군

인들이 창

조한 이런

《마식령 속

도》를 사회

주의 건설

의 모든

전선에

돌랄만 한

한 성과들이

이룩될 것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하지만 공화국에

서처럼 령도자와 인민이 한

마음한뜻으로

려의 폐지우

에 새겨가는 이런

시대어들

은 찾을수 없다.

뜻깊은 시대어들을 외우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이땅에 인공지구원성이

어떻게 날아올랐으

며 혁보

유국의 자랑,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현실이 어떻게 꽂펴나가는가를 새겨보게 될 것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령도자와 두리에 굳게 뭉쳐 수많은 시대어를 창조해가며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수십여 가지에 달한다. 목화솜, 새털을 원자재로 하는 이불들은 조선사람의 미감에 맞게 색이 은근하고 부드러운면에서도 촉감과 흰성이 좋고 포근하고 가벼워 보기 좋을뿐 아니라 사용에 아주 편리하다.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자기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남의 것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 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제품들을 련이어 개발해낸으로써 고급침구류 생산의 거점으로서 회사의 지위를 확고히 한 황금향사장.

통 큰 목표와 높은 창발성, 참신하고 탄력있는 사업전개력으로 언제나 앞으로만 내달리는 황금향사장은 《침구류 생산의 새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여 조선이불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한다.

그는 우표는 자기 생활의 길동무일뿐 아니라 말없는 스

# 여섯 번째 베 쌍 등이 퇴원

지난해 12월 평양산원에 서 여섯 번째로 고교성을 올린 청진시 라남구역의 네쌍둥이(3남, 1녀)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였다.

출생당시 애기들의 몸무게는 평균 1.4kg밖에 안되었으며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태였다.

네쌍둥이의 출생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 보건성의 책임일군들을 파견해 주시고 애기들의 치료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필요한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네쌍둥이의 소생수술을 기다리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의료일군들은 낫파 밤이 따로 없는 구급소 생전투를 벌리였다.

강력한 치료력량이 무어졌

고 전강상태는 정상회복되었으며 오늘은 몸무게가 각각 5kg을 넘어 얘기궁전을 나서게 된 것이다.

귀여운 네쌍둥이는 다재자들을 국가에서 맡아키우는 양육체계에 의해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합정북도육아원으로 떠났다.

본사기자

160여 일에 달하는 집중치료기간 190여 차의 의사협회와 300여 회의 각종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약물, 수기치료가 배합되어 애기들은 마침내 생사기로에서 벗어나

본사기자

# 이탈리아 잡지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소개

이탈리아인 토니 네트 잡지 《스파도 에 뽀펜짜》가 5일 《평양 국제축구학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축구에 재능있는 학생 소년들을 세계적 수준의 축구선수로 키우시려

김만유병원 림상연구소 순환기연구실의 김현남연구사로 말하면 보기드문 우표수집가이다.

그가 대단한 우표수집가라는 소문을 듣고 얼마전 기자는 그의 집을 찾았다.

김현남 연구사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정말 감탄할만한 박식가였다.

이료부문에서 일하고 있지만 역사와 문화, 건축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창작을 비롯하여 실로 모르는것이 없을 상상이다.

《걸어다니는 백파사전》이라는 말이 그에게 어울릴 듯싶었다. 어떻게 되어 그처럼 많은 분야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게 되었는가 묻자 그는 웃으며 《우표들이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는 우표는 자기 생활의 길동무일뿐 아니라 말없는 스

성과들을 소개하고 최근 공화국에서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체육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들이 대대적으로 건설 및 개건되고 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본사기자

승이라고 하면서 책장을 열어보았다. 책장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안에 우표집들이 차 있었던 것이다.

김현남연구사는 우표집들

면적인 지식과 상식을 주고 생활의 기쁨을 더해주는 우표를 저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우표를 수집하면서 자랑찬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우표수집 활동은 인간생활에서 기쁨과 정서를 안겨주고 정신적재부를 주는 고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표들이 떠여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김현남연구사는 병원에서 의사들과 환자들로부터 『우리 연구생선생님』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우표수집가들과 수집가들속에서는 뜨거운 조국애를 지닌 우표들을 펼쳐보았다.

그 우표들의 제목은 『애』였다. 거기에는 매우 관련한 자료들이 우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하늘의 레로 불리우는 비행사들의 모습과 생활을 반영한 우표들도 있었다.

지난 기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환자치료사업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소론문들과 연구자료들을 많이 내용은 열정적이고 실력있는 학자이며 의협심이 강하고 다정다감한 그의 사업과 생활에는 그처럼 우표수집가라는 남다른 자랑도 짓들어 있었다.

평민한 정서는 생활에 대한 사랑을 북돋아주고 정열이 샘솟게 하며 창조의 열매를 안아온다는것을 한 우표수집가에 대한 취재과정에 다시금 느낄수 있다.

본사기자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조국을 더 잘 알게 해주며 다방

그에게는 그런 우표들이 많았다.

김현남연구사는 책장에 주란히 풀려있는, 자기가 근 20년동안 애용해온 우표집들을 정답게 바라보았다.</p

최근 공화국에서 활쏘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다. 기자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체육기술련맹 활쏘기협회 부서기장 풍운체육인 오광순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 활쏘기는 오랜 역사 가지고 있다고 본다.

## 대답 전망이 좋은 활쏘기종목

오 광 순: 우리 나라에서 활쏘기는 면 옛날부터 진행되어 왔다. 고구려시기에는 주로 말을 타고 활로 짐승을 쏘아잡거나 고정된 기동우에 달아놓은 파녁을 쏘아별구는 대기를 많이 하였다. 14세기 말경부터는 경기화되어 일정한 거리에 파녁을 세우고 화살을 쏘아맞힐 수에 의하여 승부를 갈랐다.

18세기 말~19세기 초부터



얼마전 로씨야의 까잔에서 진행된 국제수영련맹 2013년 그랜드상 물에뛰어들기경기 대회에서 2인 10m고정판경기에서 공화국의 김진우, 최은경선수들이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로씨야, 중국, 벨라루시, 영국 등 18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 150명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제29차,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유럽선수권을 여리번 보유한 선수들이 참가하여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었다.

물에뛰어들기경기대회

자 2인 10m고정판경기는 고정판에서 5차례 물에뛰어들기를 하며 2차례는 규정동작을, 3차례는 난도높은 동작을 수행하게 되어있다. 이것을 종합하여 점수를 결정한다. 또한 두 선수가 걸어나

그러나 경기결과는 모두의 상상을 뒤집어놓았다.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루하여 어머니조국의 사랑과 믿음을 기어이 보답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출발선에 나선 조선선수들은 평시에 편마해

온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난도높은 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였다. 경기가 끝나자 《315.3》이라는 최고점수가 현시되었다. 그러자 관람석에서 요란한 박수갈채와 환성이 터져 올랐다.

분류하면 크게 무역위주형(자유무역지대 등), 생산위주형(수출가공지구, 보세가공지구 등), 금융위주형(비자주자금 응시장 등), 과학기술발전위주형(첨단과학기술개발구, 과학공원 등), 복합형특수경제지대로 나누어 볼수 있다.

개발구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은 매개 나라들의 자연리적 조건, 경제발전수준과 산업구조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각이한 목적실현을 위해 창설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개발구를 기능상견지에서

세계적 범위에서 활쏘기경기가 급속히 발전하는 것과 함께 활쏘기단체들이 무어지 고 나라들간에 경기도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활쏘기협회가 창립되었으며 1961년에는 국제활쏘기련맹에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 활쏘기선수들은 지난 시기 제28차 세계활쏘기선수권대회에서 단체 2위, 개인종합 3위를 하였으며 제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단체 3위를, 제9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단체 2위, 개인종합 1위를 하는 등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기자: 우리 나라 활쏘기종목의 실태와 전망은 어떤가?

오 광 순: 오늘 우리 나라 선수들의 활쏘기실력은 국가적인 관심속에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국제경기들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기자: 우리 나라 활쏘기종목의 실태와 전망은 어떤가?

리 선수들은 이미 터득한 기술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후비육성체계도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어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 학교들과 체육단들에서는 재능있는 후비선수들이 자라나고 있다.

당면하게 우리는 2016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진행되게 되는 제31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 활쏘기경기종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자면 2015년의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경기성과들을 달성하여 올림픽참가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그를 위해 지금 선수들의 기술발전에 보다 큰 힘을 넣고 있다. 우선 국내경기들을 통하여 이미 터득한 특수기술들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기들에도 나가 부단히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활쏘기는 현재 우리나라 체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종목중의 하나이다. 지금 활쏘기선수들과 감독들의 열의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사회적인 관심속에 좋은 결과를 이루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자: 우리 나라 활쏘기종목의 실태와 전망은 어떤가?

오 광 순: 오늘 우리 나라 선수들의 활쏘기실력은 국가적인 관심속에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국제경기들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기자: 우리 나라 활쏘기종목의 실태와 전망은 어떤가?

로 광 메달을 당당하게 쟁취하였다. 이것을 놓고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조선체육의 일단은 염불수 있다고 고찰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김진우, 최은경선수들이 거둔 성과에는 물에뛰어들기감독들의 알심있는 지도와 수산성 일군들의 깊은 관심, 국가과학원, 금강지도국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밀려들고 있다. 오늘도 선수들과 감독들은 금메달로 조국을 받들어갈 일념으로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훈련열풍을 일으켜가고 있다.

본사기자

인민대중자신의 참다운 언어이다.

문화에는 통일적이며 제인 규범이 작용하는 다음에 진언여어야 한다.

평양말은 조선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의 모든 훌륭한 특성들이 종합된 언어이며 어휘와 표현으로부터 발음과 억양, 문법과 문체, 맞춤법과 떠여쓰기로 이르기까지 언어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통일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

평양말은 인간의 고상한 도덕풍모를 충분히 나타낼수 있고 언어폐절을 원만히 표현할수 있는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우수한 언어이다.

고장하고 아름다운 평양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자랑이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리성호

언어학자는

나서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런게 통하지 않아. 제가 잘되고 봐야 향심이오. 의리로 하는걸 몇할 수 있는거다. 그보다 좋게 돈이다. 돈... 그러나 두말 말고 내가 쓴다는 문문을 마저 완성해라. 애비의 이 마지막 청마저 거절한다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성수는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가

는 한 그걸 절대로 실현할 수 없었다.

『뭐, 뭐라구?! ... 예익, 이 쓸개진놈 같으니라구!』

지근우는 두눈을 흡였다. 굵고 잔주름발들이 얼기설기 흘러간 불편이 두들두들거렸다. 당장 피카라도 칠듯 처들었던 오른손으로 방바닥을 텅하고 내려쳤다.

아들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이쯤 되었을 때 되돌이는 다른 이름

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되돌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고 하며 이 『정선아리랑』은 초기에 『되돌이아리랑』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엮음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선아리랑』은 여리갈래가 전해오는데 예절한 기분이 안겨드는 가락이 있는가 하면 생활에서 오는 이러한 한 인간고해의 체험도 있으며 남녀간에 주고받는 애틋한 련정적인 내용도 있다. 그리고 당대 사회에 대한 원한과 악착하고 비도덕적인 자들에 대한 윤지 거리도 있다.

본사기자

## 민족의 자랑 - 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 라 보

으로써 체마보서리마다 가벼운 들림을 주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아래밀단우의 4각기 등총은 대보탑과 나란히 다보탑이 서 있다. 8세기중경에 우리 나라 돌탑건축술이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다보탑과 석가탑은 그 대표적 유물의 하나이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의 대웅전 앞뜰에 동서로 나란히 서 있는 쌍탑 가운데서 동쪽에 있는 탑이 다보탑이다.

탑몸은 4각란간층과 8각란간층, 8각정자층의 세층으로 되어 있다. 4각란간층의 지붕들은 그우 8각란간층의 밑돌로 된다. 8각란간층의 지붕들은 다보탑의 마감층인 8각정자층의 밑돌로 되어 있다.

천수백년전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조각예술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불국사의 다보탑은 오늘 평양민속공원에 옛 모습 그대로 생동하게 재현되어 민족의 우수성을 세상에 자랑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성일



## 민요 『정선아리랑』에 깃든 전설

옛날에 강원도 정선지방에 되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늘 안해가 보기 싫다고 나무라운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되돌이는 안해와 더는 살수 없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황혼이 질어가고 있을 때 되돌이는 집에 들어서니 안해가 반가이 맞으면서 『아니, 나를 버리고 가신다더니 출전 80리도 못가고 되돌아 왔소?』하면서 가볍게 나무랐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아리랑곡조에 대돌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조의 가사로 달아 부른것이 지금의 『정선아리랑』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아버지 저라고 해서 웨아비라는 사람에게 바라는 소원이 된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살면서 늘 고생하고 당대 사회에 대한 원한과 악착하고 비도덕적인 자들에 대한 윤지 거리도 있다.

본사기자

일수가 없었다.

결국 이 아비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그걸 걷어치웠다는 소리가 아닌가. 자식을 보는데는 아비만 한 눈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 녀석을 잘못한 것이다.

『아버지, 저라고 해서 웨아비를 제게서 바라는 소원이 된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살면서 늘 고생하고 당대 사회에 대한 원한과 악착하고 비도덕적인 자들에 대한 윤지 거리도 있다.

그리고 빨간 비단주머니에는 염전도 얼마간 들어있었는데 안해의 솜씨가 분명하

는 한 그걸 절대로 실현할 수 없었다.

『뭐, 뭐라구?! ... 예익, 이 쓸개진놈 같으니라구!』

지근우는 두눈을 흡였다. 굵고 잔주름발들이 얼기설기 흘러간 불편이 두들두들거렸다. 당장 피카라도 칠듯 처들었던 오른손으로 방바닥을 텅하고 내려쳤다.

아들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이쯤 되었을 때 되돌이는 다른 이름

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되돌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고 하며 이 『정선아리랑』은 초기에 『되돌이아리랑』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엮음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고 한다.

안해에 대한 소리가 나오자 지근우의 가슴은 씹여해들었다. 아들이 하는 말보다도 자식을 부탁하고 저세상으로 간 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그게 내가 파는 미국산 소고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아버지 앞에 저의 행동은 버릇이 없는 일이지만 할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저도 저는 이렇게 가슴을 조이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근우는 놀라운 눈길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이렇게까지 나올줄을 몰랐던 것이다.

본사기자

## 자기를 찾은 사람 (7)

### 글 랑 흥

일, 그림 김 윤 일  
월, 글보지 못하고 죽은 네

에미 생활을 벌여 있었던 그대 이전에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벌여온 일이다. 그들이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있었던 일은 그들이 있었던 일이다.

나서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그런게 통하지 않아. 제가 잘되고 봐야 향심이오. 의리로 하는걸 몇할 수 있는거다. 그보다 좋게 돈이다. 돈... 그러나 두말 말고 내가 쓴다는 문문을 마저 완성해라. 애비의 이 마지막 청마저 거절한다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성수는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가

는 한 그걸 절대로 실현할 수 없었다.

『뭐, 뭐라구?! ... 예익, 이 쓸개진놈 같으니라구!』

지근우는 두눈을 흡였다. 굵고 잔주름발들이 얼기설기 흘러간 불편이 두들두들거렸다. 당장 피카라도 칠듯 처들었던 오른손으로 방바닥을 텅하고 내려쳤다.

아들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이쯤 되었을 때 되돌이는 다른 이름

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되돌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고 하며 이 『정선아리랑』은 초기에 『되돌이아리랑』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엮음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이라는 별명이 불었다고 한다.

안해에 대한 소리가 나오자 지근우의 가슴은 씹여해들었다. 아들이 하는 말보다도 자식을 부탁하고 저세상으로 간 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그게 내가 파는 미국산 소고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아버지 앞에 저의 행동은 버릇이 없는 일이지만 할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저도 저는 이렇게 가슴을 조이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근우는 놀라운 눈길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이렇게까지 나올줄을 몰랐던 것이다.